

O-X, 수출 타이트로 45달러 상승

무역업자 시세차익 노린 사재기 의혹 ... Reliance 트러블도 원인

O-X(Ortho-Xylene) 내수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수출가격은 공급이 타이트해짐에 따라 3월 21일 45달러 상승했다.

2003년 3월 O-X 내수가격은 620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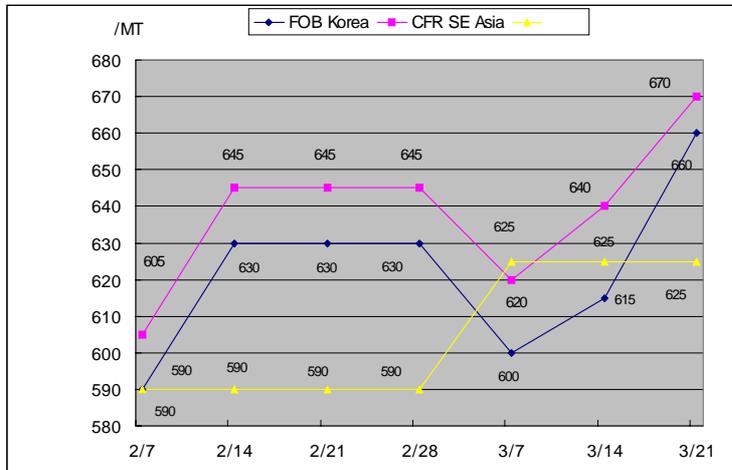
O-X는 국내공급이 타이트하지만 가격상승요인이 없어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, 동남아 공급은 인디아 Reliance의 트러블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.

하지만, O-X 공급타이트가 일부 무역업자들의 시세차익을 노린 사재기 결과로 분석돼 개선이 상승세를 지속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. 불확실한 O-X 거래가 FOB Taiwan 톤당 600달러의 낮은 수준에서 동남아로 유입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.

O-X 가격은 FOB Korea 톤당 645-675달러, CFR Taiwan 660-680달러, CFR SE Asia 655-685달러, CFR Japan 660-680달러, CFR India 700-720달러를 형성했다.

미국-이라크 전쟁 발발에 기인한 에너지 가치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O-X 공급량이 타이트해 O-X 수요기업이 비용문제를 제기할 여력이 없어 솟구치는 가격을 진정시키는 데 실패했다.

O-X 가격추이



반면, O-X의 다운스트림인 PA(Phthalic Anhydride) 시장은 넘치는 재고로 O-X 공급이 타이트한 것과 달리 활기를 찾지 못해 고전하고 있다.

인디아에서는 CFR India 톤당 700달러에 3000톤을 3월말이나 4월초까지 계약했고 인디아내 판매가격은 CFR 톤당 690-730달러에서 폭넓게 분포됐다. <김선환 기자>

<Chemical Journal 2003/03/28>